

# 동반성장 평가 '매우 미흡' 신설... 은행·방산·플랫폼까지 확대

동반위, 88차 회의서 개편 의결 '양호' 빼고 최하위 D등급 추가 특화업종 단독평가·실적 50% 6대 은행 상생금융지수 산출 방산 체계기업 15곳 상생수준 평가 온라인플랫폼 시범평가 추진



이달과 동반성장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제88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반위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이 부실한 대기업, 중견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앞으로 '미흡'보다 낮은 '매우 미흡' 등급도 받을 수 있다.

기존 4개 등급 가운데 3번째 단계인 '양호'를 없애고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추가해 변별력을 높이기로 하면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상위 6대 은행, 방산 체계기업 15개, 그리고 배달플랫폼과 오픈마켓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도 시범 추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제8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체계 개편안 ▲금융·방산·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 시범평가 추진안 ▲'빙화문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협의 권고안 ▲'떡국떡·떡볶이떡' 품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을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동반성장지수 등급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최우수-우수-양호-보

통-미흡에서 '최우수(S)-우수(A)-보통(B)-미흡(C)-매우 미흡(D)'으로 바뀐다. 변경된 등급 체계의 경우 중간인 3단계를 양호로 매기면서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등급체계 개편을 통해 '미흡'보다도 낮은 '매우 미흡'을 신설하면서 하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매우 소홀한 기업들은 '낙인 효과'로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동반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가 어려웠던 특화 분야(업종)의 경우 이번 회의를 통해 동반위의 종합평가만으로 지수를 산정해 공표하는 '단독평가'도 신설했다"면서 "공정위 평가공백을 보완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

량적 실적평가 비중을 상향(30%→50%)해 '실적평가 50% + 체감도 조사 50%'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관련해 유사 평가지표 통폐합, 실효성 부족 지표 삭제 등 평가지표 등도 개선한다.

금융·방산·온라인플랫폼 분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동반성장 평가도 시범 추진한다. '상생금융지수' 평가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방산 분야에 대한 상생수준 평가는 방산 지정 기업 중 체계기업인 강남, 기아, 대한항공,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현대로템, 현대위아, HD현대중공업, HJ

중공업, LIG D&A, SNNT다이내믹스, SNT모티브 총 15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플랫폼 관련 동반성장평가 대상 기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빙화문제조업'에 대해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고 오는 2029년 3월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협의를 권고했다. 권고대상 대기업은 경동원, 동국씨엠, 아주스틸이다.

'떡국떡·떡볶이떡'은 생계형 적합업종 요건에 부합해 중소기업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중기부는 추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과 동반위원장은 "동반성장 평가를 제조·유통 등 전통 업종 중심에서 금융·생산·온라인플랫폼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다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또한 "지방정부, 지역 소재 대기업·공공기관, 동반위가 두루 참여하는 '지역 동반성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지방경제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모델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 동화기업 동화자연마루 바닥재 탄소 저장량 첫 공인

25평 시공시 CO<sub>2</sub> 최대 956kg 고정

동화기업의 건강재 브랜드 '동화자연마루'가 자사 바닥재 제품의 탄소 저장 능력을 산림청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국내에서 목질 바닥재의 탄소 저장량을 공인받은 것은 동화기업이 처음이다.

16일 동화기업에 따르면 이번 인증의 바탕이 된 '목재 제품 탄소 저장량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수확한 목재로 생산된 제품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을 측정해 표시하는 제도다. 목재의 탄소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제정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탄소 저장 능력을 확인한 제품은 강마루 ▲진 오리진 ▲진 그란데 ▲진 그란데 스퀘어 ▲진 테라와 강화마루 ▲크로젠이다. 제품별로 3.3㎡(제곱미터)에 약 34kg에서 최대 38kg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 특히 ▲진 오리진과 ▲진 그란데 스퀘어 정사각형 규격으로 84㎡(25평)를 시공할 경우 최대 956kg의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모두의 창업 1기 출범... 5000명 창업 레이스 돌입

서울 마포 SVC Seoul 120명 참석 韓 "생태계 구축해 창업국가 실현" 2차 7월초 공고, 다면평가 도입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서울(SVC Seoul)에서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이 열렸다. /김승호 기자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야심차게 추진한 창직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이 본격적으로 맞을 올렸다.

하반기에 시작하는 '2차 모두의 창업'은 '글로벌 리그' 등을 추가하고, 신청 대상을 '창업 3년 이내'에서 '창업 7년 이내'로 넓히는 등 새로 단장해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30일 진행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놓고 "창업 이전의 스타트를 돕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오후 서울 마

포구에 있는 스타트업·벤처캠퍼스 서울(SVC Seoul)에서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장관을 비롯해 1기 선정자, 멘토 기관, 선배 창업가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에서 열린 본 행사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민과도 창업 열기를 공유했다.

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선발된 5000명의 혁신 주체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무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창업 전 과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통해 역동적인 '모두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명실상부한 창업 국가를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모두의 창업이 추구하는 인재상으로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형 인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형 인재 ▲함께 성장하는 '상생형 인재'를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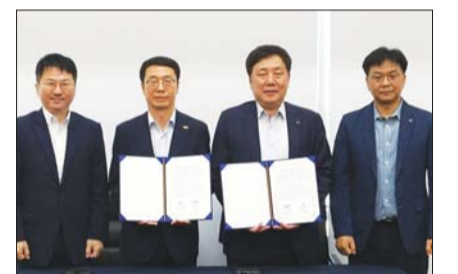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6만3000명이 지원해 12.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5000명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전문 멘토링 ▲창업활동자금 ▲AI(인공지능) 솔루션 ▲구제 스크리닝(사전검토)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쳐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멘토 기관으로 참여한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는 심사 총평을 통해 "이번 선발 과정에서 확인한 가장 큰 자산은 끝까지 해내겠다는 도전자들의 실행 의지였다"며 "멘토단 역시 도전자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다만 1기에 선발되지 못한 5만8000여 명에게는 별도의 제도전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왼쪽 2번째부터)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김영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등이 지난 16일 신보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정원

## 기정원·신보중앙회 소상공인 R&D 지원 맞손

소상공인 기술개발·성장지원 협약

소상공인들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두 공공기관이 뭉쳤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 기술개발 및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정원이 운영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소상공인 R&D)과 신보중앙회의 보증 기능을 연계한 것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한 소상공인이 사업화 자금까지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정원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기업을 추천받아 선정평가를 거쳐 총 100억원 규모로 50개사를 지원한다. 아울러 R&D 지원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 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 보증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기정원은 신보중앙회와 협력해 소상공인 R&D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보증상품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청호나이스에 디자인권 침해 소송

서밋타워, 노블 공기청정기와 유사 판단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대상으로 자사의 공기청정기 디자인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코웨이에 따르면 청호나이스가 지난 2월 출시한 '서밋타워 공기청정기'가 2021년 출시한 자사의 '노블 공기청정기'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송에 나서는 등 대응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코웨이의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출범한 디자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의 첫 공식 조치다.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서밋타워 공기

청정기가 ▲본체 사각 형상 및 비율 ▲상부 팝업부 형상 ▲상부 팝업부가 본체로부터 상하 이동하는 동적 움직임 등 주요 디자인 요소가 자사 제품과 동일하고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판단해 지난 2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코웨이는 또 외관이 유사한 제품이 출시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승호 기자

## 국제유가 하락에 내달 유류할증료 인하

이달보다 8단계 내려 20% 인하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여름휴가철 여행객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국제선 항공공의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20% 낮은 19단계가 적용된다. 이는 이달 적용 중인 27단계에서 8단계 하락한 수치로 대한항공의 경우 최대 구간 기준 유류할증료가 10만원 이상 줄어든다.

할증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가격이 내렸기 때문이다. 4월 16일~5월 15일 갤런당 410.02센

트에서 5월 16일~6월 15일 갤런당 338.3센트로 크게 낮아졌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노선별 유류할증료를 순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달 국제선 편도 기준 최소 6만1500원에서 최대 45만1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최소 4만6400원에서 최대 34만4000원으로 인한다. 최대 구간 기준으로는 10만7500원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쇼크'로 국제선 노선을 축소하거나 운항을 포기했던 저비용항공사(LCC) 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운 기자 ysw@